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1편) 최근의 세계 식육 수급 동향과 일본의 식육 수입 상황¹⁾

(원문) 일본식육수출입협회 회장 코아나 유타카(小穴 裕)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지난해 예상치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한 해이다. 아직 백신 및 치료제의 전면 보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감스럽게도 이 싸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COVID-19가 일본 수입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수입쇠고기를 중심으로 저자(코아나 유타카)가 실제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2019년 12월 중국 호북성 우한시(湖北省 武漢市)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COVID-19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피해는 급속히 중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면서 중국 내 외식 수요가 급속히 정체되었다. 그러면서 쇼트플레이트(short plate²⁾)를 중심으로 주요 상품의 움직임이 나빠지고 중국 매수가 중단되면서 선물(先物) 시세가 하락하였다. 당시, 트레이더들은 이 영향은 일시적인 트렌드로 시간이 지나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때를 경계로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싸움의 시작이 되어 버렸다.

3월 이후 서서히 COVID-19의 영향이 주요 쇠고기 생산국인 미국·캐나다를 잠식하기 시작하였고, 양국 내 식육가공 공장 폐쇄가 빈발하면서 수급 균형이 순식간에 크게 깨졌다. 5월 초순에는 사상 최대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그림 1) 유례없는 광란 장세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식량 공급을 지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도축장을 가동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발령하였다. 공장 폐쇄는 전국 도축 공급망의 지속적 기능을 위협하고 국가 긴급사태에서 중요한 인프라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내걸고, 식량 공급망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 이 글은 小穴 裕, ‘近年の世界の食肉需給の動向’,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 ~ 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년 2월호의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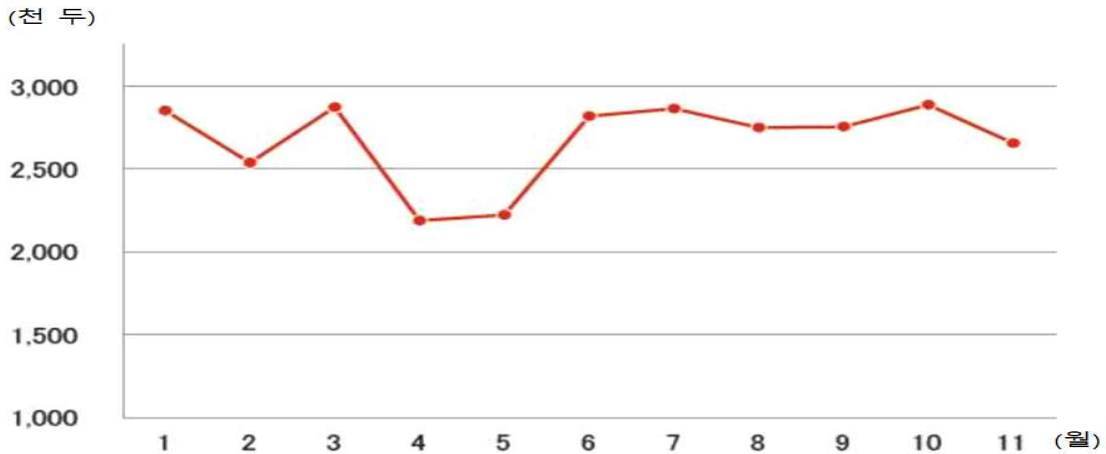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쇠고기의 업진살 부위, 우삼겹으로도 알려져 있는 부위. 주로 불고기감으로 쓰인다.(출처: 네이버카페, 토론토 맘스클럽, ‘소고기 부위’ 아는게 힘, 2017년 11월 16일 게재, <https://cafe.naver.com/torontomoms/191230>)

그리고 식육가공공장에서 일하는 전 종업원에 대한 PCR 검사³⁾ 실시,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치열한 감염대책이 강구되어, 여름철에는 통상적인 도축 마릿수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최악의 시기를 넘겼다.

〈그림 1〉 미국의 소 도축두수 추이(2020년)



주: 연방검사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Slaughter」

그러나 외형상과 가축두수는 COVID-19확대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종업원들이 재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던 것은 큰 문제가 되었다. 충분한 수의 종업원을 확보할 수 없다가 보다는 이전에 생산했던 대일본 수출용의 섬세한 스펙 상품은 아직 생산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식육 가공공장에서는 항상 제3과 그리고 제4과의 우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제 공급 불안 및 이와 관련된 시황은 COVID-19가 완전 수습될 때까지 계속되는 테마가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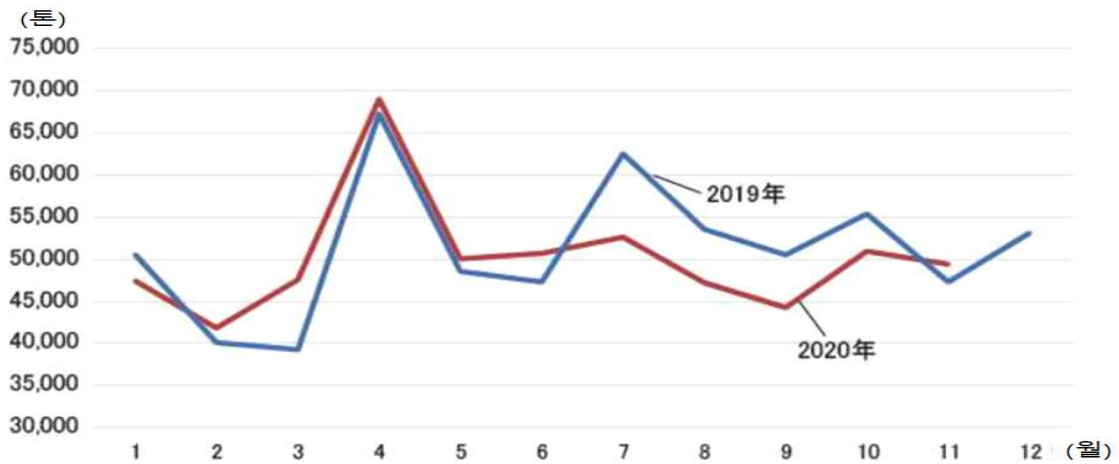
수요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2020년 1~11월의 쇠고기 수입량은 55만 1,064톤(전년 동기 대비 4% 감소)으로 수량이 안정되어 있다(그림 2). 그 중에서도 미국산은 23만 4,385톤(전년 1월에 발효된 미·일 무역협정의 혜택으로 수입량 증가)이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70% 이상이 뱃살(업진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저가의 상품군이 주력이다.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한 코로나 사태의 환경 속에서 비교적 화물 이동이 좋았던 잠재 수요 아이টে에 알맞은 것이 수입량 증가 요인이었다.

3)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우리말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이라고 불린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다.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하여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하여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외식산업이 크게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의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소비자의 식사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지만, 쇠고기를 소비한다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COVID-19는 전례가 없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각 회사의 판단과 대책은 매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식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다.

<그림 2>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추이



주: 부분육 베이스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이번 COVID-19가 우리에게 준 것은 결코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지 공급업체가 곤경 하에서도 공급을 멈춘 것에 의한 관계 강화, 거래처와 함께 곤경을 극복하려고 필사적으로 지혜를 모아 구축한 시간, 부하나 가족을 지키려고 한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코로나사태의 제일 어려운 시기에도 곤란해 하고 있는 동업 타사의 약점을 잡고, 부당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급을 멈추거나 하는 트레이더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

小穴 裕, ‘近年の世界の食肉需給の動向’,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
財務省 「貿易統計」

USDA 「Livestock Slaughter」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카페 토론토 맘스클럽, ‘소고기 부위’, 아는게 힘, 2017년 11월 16일 게재,
<https://cafe.naver.com/torontomoms/191230>)